

비평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도서

장정임 | 시인 · 《살류쥬》 편집주간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는다. 예전에 비해 부모의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져서인지, 아이들에게 책 사주기를 꺼리는 부모는 거의 없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내게 어린이 책의 자문을 구할 때, 나는 그저 난감하기만 하다. 오랫동안 검증되거나 널리 인정받은 책 외엔, 권하고 싶은 창작 동화나 동시집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이 책에 대해 폭넓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지도와 독후감 심사를 위해 일주일 동안 수십권의 동화를 읽은 적도 있고, 《살류쥬》 동인들 대부분이 초중고생의 글쓰기 교사라서 학생들에게 읽힐 책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한번은 우수한 모 신문사가 여러 전문가를 동원해 자신있게 추천한 우수도서목록과 책소개만 보고 어떤 책을 읽기 교재로 주문했다가 고스란히 사장시킨 일이 있다. 고작 그런 정도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한 말 못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 우수한 책의 반열에 오를 만큼 어린이 책의 질이 낮은지 한참 생각해 봤다.

책방에 어린이책이 많이 쌓여 있고 책의 겉모습은 좋은 인쇄술과 질 좋은 종지로 상당히 발전했지만, 책의 내용은 이를 따르지 못한다. 그 수많은 창작 동화나 동시집을 보면서 내가 놀란 것은

한층도 안되는 내용과 단순한 줄거리를 그저 길게 늘이는 글쓰기 방법이다. 어떤 책은 의미없는 소리 몇 개를 설명하느라 여러 페이지를 소모하기도 하고, 유추나 환상의 창조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뻔한 줄거리에 '예쁜' 단어만 나열한 경우가 보통이다. 미적 성취는 커녕 주제의식이나 표현 면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동화·동시집이 어린이의 현실이나 삶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거나, 진부하고 유치한 공상이거나, 고집스런 구세대적 자기의견이다보니 과연 이런 글이 어린이에게 무슨 의미와 재미를 주며 어린이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비평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책이 너무 함부로 씌어지고 출판된다. 어린이책을 비평하는 분들에게 욕 먹을 소린지는 모르지만, 창작동화와 동시집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직접 읽기 전엔 거의 믿을 만한 게 못된다. 출판사의 판매전략에 따른 추천사거나,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칭찬하고 밀어주는 '덕담 비평'이 다반사니, 그 글을 믿고 책을 샀다가는 내용의 공허함에 실망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기자들 중에도 어린이 책을 꼼꼼히 읽고 서평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인문학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작가나 비평가들도 어린이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요즘 나오는 아동문학의 진부함과 지체성을 벗는 길은 출판사가 훌륭한 필자를 발굴하고 철저한 기획에 따라 출판하는 데 있다. 아동문학가들도 비평없는 '무풍지대'를 안이하게 향유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문학은 성인문학에 대립되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써도 좋을 쉽고 편한 문학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소중한 사명을 지닌 '전문' 문학이다. 아동문학이라고 해서 유치해서야 되겠는가? 많은 매체와 인터넷 사이트가 어린이 책에 좀더 관심을 쏟고 치열한 비평을 일상화했으면 좋겠다. ●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